



# 선교확산을 위한 동양종교와 기독교의 접촉점 연구

- 도교(道敎)와 불교(佛敎)를 중심으로 -

김은수(전주대)

## 1. 서론

도교는 중국의 옛 민간신앙에서 발달한 것으로 민간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도교적 신앙을 총칭한다. 도교는 인도인들의 삶의 총체가 힌두교인 것처럼 중국인들의 철학·사상·종교·생활·풍습·관행·도덕·문학·예술·과학 등이 포함된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불교 역시 동양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어서 도교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도교와 불교의 동양적 사유의 삼위일체는 하나의 실재를 드러내는 방식이자 구성방식이고 스스로 다른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것은 이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원론적

---

1) 사카이 다다오(酒井忠夫) 외/최준식 역, 『도교란 무엇인가』(서울: 민족사, 1990), 16-18.

세계관에 기초한 서구의 뉴턴 데카르트적 사고와는 다르다.<sup>2)</sup> 따라서 동양의 히브리적 사고에 기초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도 과정철학자 화이트헤드(A. N. Whitehead)는 현실적 존재(actual entity)를 과거와 미래, 물극(physical pole)과 심극(mental pole)이라는 두 양극의 만남을 통해 주체적인 방향으로 완결(completion)되어 간다는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였다.<sup>3)</sup>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와 동양의 실재에 대한 이해가 삼위일체적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전통적인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양적 사유가 오랜 동양적인 전통 안에서 살아온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적 확산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더구나 도교와 불교는 기독교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기독교보다 더 많은 신도를 가지고 삶을 지배해왔기 때문이다.<sup>4)</sup> 그러므로 이 글은 동양종교 안에 존재하는 한국교회에게 선교적 확산을 위해 가능한 접착점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진리를 뿌리내리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2. 삼위일체와 삼일성(三一性)

도교에서 생명은 궁극적으로 삼일적이다. 『도덕경』 42장에는 이것이 잘 요약되어 있다.

---

2) 이세형, "성령론에 대한 기철학적 이해", 『선교신학』 15집 (2007), 208, 211.

3)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ed. David Ray Griffin and Donal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18.

4) 2012년 위키피디아(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religious\\_populations](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religious_populations).)의 세계 종교인구는 기독교 31.5%(21억 명), 무슬림 23.2%(15억 명), 힌두교 15%(10억 명), 불교 7.1%(3억7천6백만 명), 중국민속종교(도교) 5.9%(3억9천4백만 명), 유대교 0.1%(1천4백만 명)이다.

“도(道)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는다. 그리고 셋에서 만물이 나온다. 그러므로 만물은 음(陰) 기운과 양(陽) 기운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으며 그 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통일체로 존재한다.”<sup>5)</sup>

여기서 만물이 음과 양을 동시에 간직한다는 것은 밀도가 가장 짙은 물체의 상(相)으로부터 밀도가 가장 얇은 사고(思考)에 이르는 모든 유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 유상은 나타나서 자라고 성숙하면 쇠퇴하는 순환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은 무상에서 유상으로 그리고 다시 무상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운동양식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영원한 진리인 도를 따르는 것이다.

만물이 ‘양’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상’(有相)을 말하며, ‘음’은 모든 유상의 ‘배후’로서 볼 수 없는 ‘무상’(無相)을 말한다. 이러한 음과 양, 무상과 유상은 ‘기’(氣)가 충만한 움직임(動)이기 때문에, 음과 양 그리고 움직임, 이 셋은 하나로서 만물을 구성하는 삼일성(三一性)을 가진다. 이 삼일성은 무상과 유상의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도’가 하나를 낳는다는 것은 만물이 나름대로의 상(相)을 가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의 맨 처음은 ‘유’(有)로서 하나이며, 첫 번째이다. 이 유상은 그 다음에 무상이 되며, 이것을 유상에 더하면 ‘둘’이 된다. 이 둘은 생명으로서 항상 움직인다. 그러므로 만물은 모양이 없는 음과 모양이 있는 양의 움직임으로 삼일성(三一性)을 가지고 존재한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존재양식은 삼위일체로서 도교의 삼일성과 유비될 수 있다. 음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성부, 聖父)이며, 양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성자, 聖者)이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

5) 이순연 & Th. G. Hand, 『여기 물이 있습니다 - 도교와 불교의 눈으로 살펴본 기독교』 (이희정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96

버지를 보았다”(요 14:9)고 하셨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靈, 도교의 氣)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움직임(動)으로 존재하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움직임(動)이 성령(聖靈)이시다.<sup>6)</sup>

삼위일체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요 15:26) 삼위일체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며 그 진리를 따르도록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도교에서 삼일성은 생명운동으로 결국 진리(道)를 깨닫게 하고 이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영원한 진리인 도를 따르는 것은 곧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므로 도는 영원하며, 도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결코 죽지 않는다.<sup>7)</sup>

도는 또한 만물을 생성하는 원기가 지켜야할 규칙과도 같은 것이다. 이 원기(元氣)를『태평경』에서는 ‘기의 으뜸’(氣之元) 또는 ‘기의 처음’(氣之始)으로 원초의 기라고 말한다. 원기는 만물이 그것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세계의 본체이다. 따라서 세계 안의 사물은 모두 하나의 원기로부터 생성된다.<sup>8)</sup>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말하기를 “태초에

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 14:26; 15:26)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성령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요 3:34)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 3:8) 등의 말씀은 성령이 움직임(동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7) 『도덕경』 16장. 이순연 & Th. G. Hand, 옮김, 208에서 재인용.

8) “故天地未分之時，積氣都合爲一，分爲二，成夫婦，天下施於地，懷妊於玄冥，子爲甲子”(고천지미분지시 적기도합위일 분위가 성부부 천하시어지, 회임여현명, 자위갑자):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을 때에는 싸인 기(積氣)가 모두 하나로 합하여 있었으나 나뉘어 둘이 되고 부부를 이루었다. 천하가 땅에 베풀어 어둠(현명玄冥)에서 잉태하니, 이름하여 갑자(甲子)라 하였다.” 『太平經(태평경)』 卷102, 『經文部數所應訣』(경문부수소응결), 463.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태평경의 철학체계와 도교적 세계관) (돌베개, 1998), 94에서 재인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하나님의 영’(루아흐 엘로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창 1:1-2) 이 ‘루아흐’가 때로는 ‘기운’(창 7:22)이나 ‘바람’(창 3:8)으로 해석됨으로서 도교에서 음과 양의 움직임의 근원인 기(氣)와도 일맥상통한다.

불교에서는 신론(神論)이 없다. 하지만 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삼일성으로 풀이하고 있다. 불교의 경전 『반야심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4행의 짧은 경문(經文)이 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물질(色)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아서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sup>9)</sup>

여기서 색은 모든 테두리 속에 한정된 물리적 형체와 상(相), 현상과 현시(顯示)를 가리킨다. 그리고 공은 모든 색이 나타나 있지 않는 모든 범주를 초월한 ‘무위의 진인’으로서 영원하다.<sup>10)</sup> 따라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야웨 YHWH)라고 하실 때 자신을 어떤 형태나 모양으로도 나타낼 수 없으며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것을 나타낼 수 없음을 표현하신 것이다. 불교에서 공은 자신을 어떤 테두리 안에도 넣을 수 없으며, 이름을 지어 부를 수도 없음을 말하는 이치와도 같다.

그런데 그 공이 곧 색과 다르지 아니하고 색이 곧 공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요 14:9)이라고 하셨듯이 물리적 형태를 지닌 색(色, 形)이 초월적 진인인 공(空, 無)과 같다는 말로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색은 아들과 유비되고 공은 아버지와 유비되며, 이 둘에서 하나

9) 고성훈, 『불자독송집』(우리출판사 불기 2545년), 11.

10) 이순연 & Th. G. Hand, 윗글, 45.

의 생명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영(靈)이다. 불교에서는 공과 색의 흐름을 이어주는 것을 영(靈)이라고 하며, 기독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Filioque) 영(靈)을 성령(聖靈)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공과 색이 하나이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영(靈)으로서 삼일성으로 설명되듯이, 기독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바로 성령(聖靈)으로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sup>11)</sup>

### 3. 도교의 태평경과 기독교의 구약과 복음서

도교의 『태평경』은 도교를 이해하는 데 지름길을 제공한다. 대륙의 도교사(道敎史)에서는 도교의 흐름을 크게 단정파(丹鼎派)로부터 유래한 관방도교(官方道敎)와 부록파(符籙派)로부터 유래한 민간도교(民間道敎)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포박자』(抱朴子)는 관방도교의 기본경전이며, 『태평경』은 민간도교의 대표 경전이다.<sup>12)</sup>

『태평경』은 원시도교라고 할 수 있는 민간도교의 중심경전으로 당시의 시대적 조류인 기(氣)의 관점에서 세계 해명방식을 채택하고 그것을 모든 측면에 적용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교적 세계관을 처음으로 정립하고 후대 도교의 세계관형성에 기틀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사상 및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13)</sup>

종교에서 초기 경전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태평경』은 오늘날의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사상과 이상적 사회를 위한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 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날 그 연구의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와 많

11) 윗글, 93-94

12) 정재서, “태평경의 성령 및 사상에 관한 시론”, 『한국도교와 도가사상-한국도교사상연구논총 5』(서울: 아세아문화사, 1991), 80.

13) 윤찬원, 윗글, 259-262.

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교적 접촉점을 찾아 선교적 확산을 도모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 1) 도(道)와 로고스(logos)

『태평경』에서 원기(元氣)가 만물을 생성하는 세계의 실체라면, 도는 원기가 세계를 생성하는 데 지켜야 할 규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계 안에 있는 사물의 생성과 소멸은 필연적으로 도를 따른다. “원기가 도를 지켜서 생겨나는 것은 이와 같다. 자연은 도를 지켜 운행하며 만물은 모두 그 할 바를 얻는다. 하늘이 도를 지켜서 운행하니 신묘하여 일정한 모습이 없다. 위로는 사람의 군주와 아버이를 본받아 변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 실로 ‘도의 뜻’(道意)을 얻게 된다.”<sup>14)</sup>

여기서 ‘도의 뜻’이란 도의 의지로서 도의 법칙이 우발적이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세계법칙이란 의미이다. “천도(天道)에는 바른 법이 있어 우연히 서로 모이는 것은 없다.”<sup>15)</sup>

그러므로 각각의 사물들이 도를 따르지 않으면 천도(天道)에 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도는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힘으로서 그 힘이 미치지 않는 사물은 이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는 최고의 존재인 황천의 명령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자체의 자발성으로 원기로 하여금 만물을 생성케 한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로고스 logos)이 있었다고 한다(요 1:1).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14) “是元氣守道而生如此矣。自然守道而行，萬物皆得其所矣。天守道而行，即稱神而無妨。上象人君父，無所不能制化，實得道意。”(시원기수도이생여자의, 자연수도이행, 만물개득기소의, 천수도이행, 즉칭신이무방, 상상인군부, 무소불능제화, 실득도의), 초(鈔) 乙部(을부) 卷18~34, ‘安樂王者法’(안락왕자법), 21, 윤찬원, 윗글, 102에서 재인용.

15) “天道有格法，運非際會也。”(천도유격법, 운비제회야), 초(鈔) 丁部(정부) 卷56~64, 윤찬원, 윗글, 103에서 재인용.

되었으니, 로고스 없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중국은 요한복음을 번역할 때 로고스를 도(道, Dao)로 번역한다.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요 1:14) 중국에서는 도가 성육신(incarnation)하여 오신 것이고, 그가 곧 그리스도이자 도(道)라는 것이다.<sup>16)</sup>

그리스도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만(눅 22:42), 그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며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다(요 14:9; 빌 2:6). 그러므로 만물 가운데 도(道)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이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2) ‘人取象於天’(사람은 하늘의 상을 취한다)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태평경』은 ‘상’(象)을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은 본보기(象)를 하늘로부터 취하고 하늘은 본보기를 사람으로부터 취한다는 것이다.(人取象於天, 天取象於人)<sup>17)</sup> 이 말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가 일방적이 아닌 쌍방 간의 관계라는 것이며, 서로 간의 관계성을 나타낸다. 인간은 도에 따라 원기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축소하여 만든 축도(縮圖)이다.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 받은 것이며, 발이 모난 것은 땅을 본 받은 것이다. 사지는 사계절을 본 받은 것이며, 오장은 오행을 본 받은 것이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16) 김은수, 『비교종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27-128.

17) “故人取象於天, 天取象於人. 天地人有其事, 象神靈, 亦象其事法而爲之……此三者, 天地中和之疾使, 隨神氣而動作, 應時而往來, 絕洞而無間, 往來難知處”(고인취상어천, 천취상어인, 천지인유기사, 상신령, 역상기 사법이위지……차삼사, 천지중화지질사, 수신기이동작, 응시이왕래, 절동이무간, 왕래난지처): “사람은 본보기(象)를 하늘로부터 취하고 하늘은 본보기를 사람으로부터 취한다. 하늘과 땅, 사람은 각각 일을 하며 신령을 본받고 일의 본보기(事法)를 본받아 한다.……이 셋은 천과 지, 중화가 다투어 부리는 것으로 신비로운 기를 따라 움직여 일어나며, 때에 응하여 오고 가고, 텅 빈을 끊어 사이를 없애니, 오고 감에 바른 장소를 알기 어렵다.” 권118, ‘천신고과구교삼합결’(天神考過拘校三合訣), 673. 윤찬원, 뒷글, 127에서 재인용.



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첼렘 Imago Dei)을 따라 우리의 모양(테무트 Imago Dei)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첼렘) 곧 하나님의 형상(셀렘 엘로힘)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창1:26, 27)하셨다. 여기서 ‘닮았다’는 히브리어 ‘테무트’와 ‘형상’이라는 ‘첼렘’ ‘셀렘’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으나 인간은 외형적으로나 인격을 형성하는 내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기원을 갖는 존재라는 것이다.<sup>18)</sup>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교의 道)으로부터 생기(루아흐, 도교의 元氣)를 받아 생명을 부여받았다.(창 2:7)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일방적이 아닌 쌍방 간의 언약을 통해 그 관계성을 유지하신다.(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 등) 그들이 하나님 말씀(로고스, 道)을 청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그들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고(신 30:9-10),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신 30:18)

### 3) 태평(太平)과 샬롬(Shalom)

태평은 『태평경』의 핵심사상으로 천·지·인 삼통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로써 현실세계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화사상이다. 모든 존재들의 조화가 최고도로 발현되는 상태가 태평이며, 이러한 조화를 이룰 때 즐거움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만물이 즐거움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태화(太和)라고 하는데, 태화는 태평의 다른 이름이다. 태평에서 ‘태’는 ‘크다’(太)는 것이며, ‘평’이란 ‘바름’(正)을 의미한다. 즉, 태평은 ‘크게 바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세계가 원초적 상태의 바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결국 태평은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

18) 김은수, 『사회복지와 선교』(대한기독교서회, 2014), 23-29.

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서 천기, 지기, 중화기의 세 기가 조화의 상태를 이루어 '셋이 합하여 서로 통하는' 삼합상통(三合相通)이다.<sup>19)</sup> 이것이 태평의 적극적 의미이다.

한편 태평의 소극적 의미는 세계 안의 모든 사물이 상하거나 병든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태평의 이념은 근본적으로 원기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는 생명 중시의 사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 이러한 생명들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더욱 귀중한 것이라는 인간관을 시사한다.<sup>20)</sup>

성경에서 평화, 또는 평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Shalom)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인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의 언약을 약속하셨으며(민25:12), 전통적인 축복기도의 전형에도 '평안'을 위해 빌도록 하셨다.(민6:24~26)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간 삶의 모든 전망들이 포함된다. 그것은 정의, 진리, 공동체 그리고 평안, 화평 등으로 불려진다. 미가에서는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평강'(Shalom)이 될 사람이라고 했으며(미 5:5), 바울은 메시아를 '화평'(Shalom)이라고 부르며(엡 2:14), 복음을 '평안'(Shalom)의 복음이라고 하였다(엡 6:15). 특히 '하나님의 선교'에서 선교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샬롬이며, 이 샬롬은 헬라어의 평화(eirene)가 내포하고 있는 마음속의 평안으로 해석되지 않고 사회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인간사이의 사건으로 이

19) 삼합상통에서 삼이란 전통적 삼재사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교적 세계관의 특징이다. 세계를 셋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방식은 「태평경」이 최초이다. 이러한 삼분법적 세계 파악은 후대의 선구적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오두미도의 천·지·수라는 삼관사상(三官思想), 후기 도교의 삼일신(三一神), '삼원'(三元), '삼시'(三尸), '삼천'(三天), '삼시'(三始), '삼황'(三皇), '삼청'(三淸) 등의 사상 및 육수정(陸修靜: 406~477)의 도교경전 분류방식인 '삼룡'(三洞) 등은 「태평경」의 삼에 의한 삼분법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윤찬원, *율글*, 131-136.

20) "태평경의 기본 사상은 실제로 태평의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태양·태음·중화, 하늘·땅·사람, 해·달·별, 산·내·평지, 부·모·자, 군·신·민, 도·덕·인 등 삼자로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영역들 간의 조화로 운 소통이 필연적임을 단언한다.……세 요소들이……상호 소통하는 하나의 가족을 형성할 때 세 기는 태평의 기가 이루는 위대한 조화로 통일되어 태평을 성취한다." Max Kaltenmark, *The Ideology of the Tai-Ping ching*, 26-27. 윤찬원, *율글*, 135에서 재인용.

해된다.<sup>21)</sup> 또한 살롬의 내용은 미래에 다가올 희망의 세 가지 지평 즉, 생명(Leben), 정의(Gerechtigkeit), 하나님의 나라(Reich Gottes)이다. 따라서 살롬은 인간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사건이다.<sup>22)</sup>

이것은 도교에서 말하는 하늘, 땅, 사람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태평의 적극적 의미와 일맥상통하며, 또한 천기, 지기, 중화기의 세 기가 조화의 상태를 이루어 ‘셋이 합하여 서로 통하는’ 삼합상통(三合相通)의 사회적 사건이자 공동체적 태평과도 유비되는 것이다.

#### 4. 불교의 금강경(金剛經)과 기독교의 복음서

「반야심경」과 함께 널리 독송 되고 있는 「금강경」은 교종과 선종을 비롯하여 고등 교과인 사교과(四教科)의 주요 경전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그 완전한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蜜經」또는 「능단반야바라밀경」이다.<sup>23)</sup> 「금강경」의 금강(金剛)은 금강석 곧 다이아몬드로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무엇이든지 부술 수 있고, 가장 예리하기에 무엇이든지 자를 수 있으며, 가장 반짝이기에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금강석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반야의 지혜로 비유한 것이다.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예리하고 반짝이는 완전한 반야의 공지(空智)로 보살행을 수행하면 열반을 성취하여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담은 매우 귀중한 경전이란 뜻이다. 바라밀(PARAMITA)은 범어(SANSKRIT, 梵語)로서 고대 인도의 고전적 문어체)의 파라미타를 음역한 것으로 ‘도’(度) 또는 ‘도피안’(到彼岸)으로 번역된다. 즉 미혹으로 가득한 이

21) WCC, *Die Kirche für andere und Die Kirche für die Welt im Ringen um Strukturen missionarischer Gemeinden* (Genf, 1967), 17.

22) J. C. Hoekendijk, *Kirche und Volk in der deutschen Missionswissenschaft* (München: Chr. Kaiser, 1967), 347.

23)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고성훈, 위글, 156-230 참조.

세상 언덕의 현실로부터 깨달음의 저편 언덕인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 가게 해주는 실천을 말한다.<sup>24)</sup> 여기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반야)의 여섯 가지 구체적인 실천항목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한다.<sup>25)</sup>

「금강경」의 주요 사상은 다른 반야부 계통의 경전과 같이 공사상(空思想)을 담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상으로 일체의 번뇌를 멸함으로써 반야지혜를 얻어 대각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한다.<sup>26)</sup> 금강경을 보면 모양과 음성으로 여래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과 음성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인 6근과 모양, 음성, 향기, 맛, 촉감, 법칙의 여섯 가지 감각 대상인 6경을 말한다. 부처님을 진실로 보려고 한다면 반야의 지혜로써 진리의 몸인 여래를 직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리를 보는 눈은 육신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금강 반야’라고 하는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눈이라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 1) 깨달음과 거듭남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성철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가르침은 원래 야부(治父)스님의 금강경 오가해((金剛經 五家解) 해설서에 나오는 시구의 앞부분을 따온 것이다. 해설서에는 원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시산(山是山) 수시수(水是水) 불재하처(佛在何處)”

이것을 풀이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

24) (재)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서울: [주]진재, 2005), 674.

25) 육바라밀은 김은수, 『비교종교학 개론』, 149-150 참조.

26) 금강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공사상에 가장 밝은 해공제일(解空第一) 수보리 존자이다. 즉 수보리는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최고의 진리를 배우고 닦으려는 마음을 낸 선남선녀는 마음 자체가 어떠해야 하며(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라고 질문 하였다. 이에 부처님이 대답하였고, 수보리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 형식으로 엮여져 있다. 이재창, 『불교경전의 이해』, (서울: 경학사, 1998).

는가 라는 말인데, 이것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이치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 첫 단계는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서 만상(萬象)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산은 산이며, 강은 강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일체 만물의 근본은 하나이므로 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산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산이 있으므로 물이 있고 물이 있으므로 산이 있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산을 보면 산은 이미 산이 아니었고, 강을 보아도 그것은 강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첫 단계로의 환원이 아니라 산과 물 즉, 이 모든 자연계 안에서도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부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법어(法語)를 듣게 된다는 것이다. 온전히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으로서 고요함의 경지 안에서 산을 산으로 강을 강으로 보는 것이다.<sup>27)</sup>

기독교에서도 거듭남의 첫 단계는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 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자 니고데모는 단순히 육적 출생의 두 번째로만 이해하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물었다.(요 3:3-4) 아직 니고데모는 깨닫지도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임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예수님 안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으며,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27) 이순연 & Th. G. Hand, 윗글, 60-61.

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요 17: 21,23)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요 14: 11)고 요청하셨다.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웃의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은 ‘발꿈치’라는 이름의 뜻처럼 형님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자신의 상술과 재주로 살아왔으나, 압복장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불구가 된 뒤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여, 다스려주소서’라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거듭난 야곱은 자신과 원수가 된 형님을 만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창 33:10)라고 고백하였다. 참으로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인간으로 거듭났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그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롬 12:1)로 드리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산제사’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놀랍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sup>28)</sup> 따라서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2) 공(空)과 자기 비움(kenosis)

금강경의 중심인 공(空)사상은 범어로는 ‘SUNYATA’로서 존재하는 것에는 실체도 없고 영원불멸한 ‘나’라는 것도 없음을 말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기(緣起)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실체로서 불변하는 자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실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28) 김은수, 『사회복지와 선교』, 48.

사람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나 자신의 주장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sup>29)</sup>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 상(相)과 현시(顯示)의 실체를 초월하는 것이 공(空)이다.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는 야웨(YHWH, I am I)처럼 공(空)은 특정한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으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형태로 자기를 비운(空) 것은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이다. 금강경의 공(空)사상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kenosis)과 유비(analogy)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막 15:34)라고 외친 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한다. 하지만 그 보다는 더 심오한 예수의 궁극적인 자기 비움(kenosis)의 부르짖음의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였으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그 모든 테두리를 버리고 자신을 아무런 제한 없이 비우게(空)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요 19:30)고 말한 것은 그의 완전 무결한 자기 비움에 도달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비움과 아울러 인간과의 수평적인 비움을 이루었다.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도망쳐 갔다(막 14:50).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족과의 관계도 더 이상 없었다. 예수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 19:26)라고 했을 때 그의 의식은 이미 아들이라는 테두리 밖에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그가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요 19:27)고 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러한 자기 비움(空)은 예수의 옷을 군인들이 빼앗아가는 것에서 인간으로서 ‘나’의 모든 수평적인 테두리를 떠난 것을 나타낸다(마

29) (재)불교전도협회, 윳글, 672.

30) 현대 신학자 John Cobb은 그리스도의 비움(kenosis)에 대해 “비움(空)이란 제한하는 경계나 소유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테두리 같은 어떤 필터(filter)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움이란 거기에 있는 것, 또는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연 & Th. G. Hand, 윳글, 129에서 재인용.

27:35).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 권력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비운 사건이자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사건이다.<sup>31)</sup> 이것은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자신의 죽음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한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 5. 과제와 선교확산 방안

도교와 불교는 동양종교로서 동양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역시 동양의 토양에서 시작된 동양의 종교로서 서구의 이원론적 사고에 바탕한 서구신학과는 달리 기독교 진리 이해에 많은 공통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교적 접촉점과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삼일성, 도와 로고스, 깨달음과 거듭남 등의 유비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교리적인 연속성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오래전 확인되었다.<sup>32)</sup> 엄밀히 보자면 도교와 불교에서는 인격신(人格神)은 없으며, 생명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뿐이다. 공(空) 역시 신(神)과도 유비되지만 신학(神學)이라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수한 유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 해석이며, 동양의 삼위일체는 우주론적 형이상학의 관계적 사유구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체가 신성(神性)을 가졌으나, 도교와 불교의 삼위는 유상 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를 나타낸다.<sup>33)</sup>

도교와 불교에서는 무상과 유상, 신과 피조물 사이에 실존적인 간격과 차이가 없으며, 이 둘은 하나의 생명의 흐름으로서 상호 의존적이며

31) 윗글, 126-128.

32) 김은수,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79-88. “복음과 비기독교 신앙의 연속성 문제” 참조.

33) 이세형, 윗글, 213; 이순연, Thomas G. Hand, 윗글, 10-11.



서로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신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며, 인간은 신을 의존하나 신은 인간과 독립되어 있어서 신과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간격이 있다.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된 예수조차도 그 위격 안에서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인간의 신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신을 의지하게 한다.<sup>34)</sup>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의 사건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으며, 그에게로 나아 갈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한 신학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양종교의 세계관을 통해 선교적 접촉점을 찾는 것은 동양의 원리로 기독교의 복음이 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해석학적 원리에 있어서는 동양종교로서 기독교 복음이 서구의 이원론적 사유 안에서 설명되는 것 보다는 오랫동안 도교와 불교의 전통 안에 살아온 한국인들에게는 동양적 사유로 더 분명하고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교적 확산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의 토착화는 서구신학을 어떻게 동양의 토양에 잘 정착시키느냐가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동양적인 사고로 재정립하여 우리의 토양에 맞게 뿌리내리게 하느냐는 것이다. 서구신학의 토착화가 아니라 복음의 토착화이며, 서구적 원리가 아니라 동양적 원리로 읽어내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활동에 깨어서 세심하고 신실하게 참여해야 할 것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도 문화적 코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성령의 살아계시고 역동적인 활동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문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한국교회는 다음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하여 선교적 확산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그리고 동시에 자신

---

34) 윌콕, 11.

의 문화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화와 단절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적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할 때가 많다. 예를 들면, 내가 유럽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스위스장로교회, 독일개혁신교회 등 칼빈주의 계통의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교회 목사인 필자로서도 같은 전통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매우 낯설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면 오순절 교회이건 침례 교회이건 감리교회라고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순서와 형식이 거의 비슷해서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었다. 이처럼 신앙인은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문화적 정체성보다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보수주의 신학을 지키는 교파적 정체성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독재정권아래에서 그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침묵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세상과 분리된 교회성장에만 몰두하느라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어 오늘의 침체를 초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과 경제정의, 환경보전 등 민족적 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문화유산과 세계관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기독교가 외래종교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뿌리내리게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침체하는 동안 토속종교와 불교 등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동양적 사고로 소통하며 복음을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선교확산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매우 긴급한 일이 되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함으로써 복음을 확산해나갈 수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파송하시며, 아들은 사도들을 파송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파송하신다. ‘선교’

라는 라틴어 missio는 ‘파송’을 뜻하며, missio Dei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파송으로써, 특히 오늘날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서구교회는 기독교적(christologische) 사고에 집중함으로써 하늘로 승천하신 자의 우주적 통치에 근거한 서구적 승리주의선교를 행함으로써 타인에게 군림하는 군주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선교는 다원화된 종교의 사회 속에서 많은 저항을 받을 뿐 아니라 선교적 접촉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역동적인 흐름처럼 움직이며(動), 새로운 생명의 기운(氣)을 불어넣는 성령론적(pneumatologische) 시각에서 선교를 이해하여야하다. 이러한 이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양종교와 세계관과도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 접촉점은 물론 선교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성령은 아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아들의 선교를 계속하는 것이며, 세계 속에서 그의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 구체화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한 20:21-2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처럼 그리스도의 선교 위임명령에는 성령의 약속이 따르며, 성령의 자유로운 활동은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베드로 역시 지금까지의 그의 율법적인 신앙(유대교의 할례와 정결법에 얽매어 있었음)에서 회심하였고 그로 인해 초대교회가 율법에서 해방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할례 없는 세례를 베풀었고, 이것이 예루살

렘의 사도들에게 전해져서 논란이 일어나자 그는 성령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을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사도행전 11:17)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은 고넬료가 이방인의 벽을 허물게 하였고, 경건한 유대인 베드로가 문화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였다.

이처럼 성령론적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해는 오늘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인종, 문화 그리고 종교적 장벽을 넘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오랫동안 동양종교 안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셋째, 텍스트(Text)를 해석함에 있어서 컨텍스트(Context)와 창조적 관계구조를 가져야 한다. 창조적 관계구조란 컨텍스트가 여전히 세속적 문화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활동하시고 섭리하셔서 창조적인 질서로 변혁하고 계신다는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텍스트는 항상 변함이 없고, 상수(常數)이며 주체라고 생각하며, 컨텍스트는 가변적이고 변수(變數)이고 객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우리는 문화적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족장들이 여러 부인들과 함께 살았음을 잘 알고 있으나 오늘날 일부다처(一夫多妻)가 성경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 이미 자신의 컨텍스트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성경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결코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종은 오히려 주인에게 저항하여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컨텍스트적 해석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람직한 태도이다. 이와 반대로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오직 텍스트만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교회에 다니는 어떤 기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와 성경에 노동조

합이 있는가라고 묻고, 목사님이 없다고 하자 회사로 돌아가 성경에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과연 이것을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대표적인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문화(Culture)를 판단할 때 그것이 단지 각기 다를 뿐이지 악하거나 선하다고 쉽게 말할 수 없다.<sup>35)</sup> 왜냐하면 문화는 인간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오랫동안 밀접한 연관을 가져오면서 인간이 지닌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구체적으로 일구어오고 창출한 인간 행위와 생각의 총체적 결과이기 때문이다.<sup>36)</sup> 그러므로 문화는 언제나 객관적인 대상인 컨텍스트로만 취급될 수 없으며 세속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활동은 제한되지 않고 창조적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기독교와 문화와의 사이를 명쾌하게 둘로 구분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 질 수도 없다. 즉 이 둘은 창조적 관계구조 속에서 서로가 깊은 관련성과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텍스트로 다른 하나를 컨텍스트로 구분 짓는 일은 복음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선교적 확산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원리이다. 가령, 한국교회회가 성탄절에 행하는 대부분의 행사와 내용들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혼합주의(syncretism) 요소들이다. 절기의 날짜도 태양신의 숭배일이고, 나무로 장식하는 트리와 걸어둔 선물들은 이방풍습이며, 현관문에 푸른 잎으로 둥글게 만들어 걸어둔 장식은 귀신을 내쫓는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성탄절의 본질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incarnation)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가운데 살아있는 컨텍스트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담은 축제

35) '문화'를 뜻하는 영어 'culture'는 라틴어의 '경작하다'를 의미하는 'cultura'에 그 어원을 둔다. 여기에 기초하여 프랜시스 니콜 리는 문화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언약에 두고 창세기 1장 28절의 'cultura'를 '정복하라'가 아닌 '경작하라'로 번역해야 하며, 따라서 인간은 문화를 일구어내고 경작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Francis N.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Philadelphia: Prpco, 1976), 18.

36) 김은수, 「선교와 문화」(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8), 15-16.

로 만들어가야 한다.

올바른 선교적 확산을 위해서는 서구의 신학과 풍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한국적 문화와 동양적 세계관의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읽어내고 해석할 때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서구의 문화를 한국의 컨텍스트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의 활동에 창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독교가 외래종교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복음과 구원의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삶의 컨텍스트에서 끊임 없이 텍스트와 창조적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연구를 선교현장에서 적용할 때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불교나 도교 등 다른 종교의 신자들을 적그리스도로 여기거나 일반인과 다르게 보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 어찌면 아무런 종교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는 더 선(善)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을 다른 종교의 신자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 이유는 기독교만이 절대 구원의 종교이므로 다른 종교를 배설물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의 고백이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 역시 복음이 필요한 꼭 같은 사람들이다.

또한, 한국에 먼저 들어온 종교들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으나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고 하였다.(갈 3:23-24) 이처럼 동양종교의 세계관과 사유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초적인 가르침을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들과의 유사성을 활용한 선교가 필요하다. 바울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보고도 그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심이 많음을 칭찬하며 대화의 접착점으로 활용하였다.(행17:22-23)

마지막으로 타종교 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윤리를 잃어버렸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윤리적이지 않은 기독교는 결코 선교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sup>37)</sup>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하는 시대이다.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거나 다시 원래의 종교로 돌아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랑의 종교로 여겼던 기독교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로서 종교에 상관없이 이웃을 대가없이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이 사명에 충실할 때 선교는 이루어진다.

## 6. 참고문헌

고성훈 편, 「불자독송집」(서울: 우리출판사, 불기 2545년).

김은수, 「비교종교학 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김은수, 『사회복지와 선교』(대한기독교서회, 2014).

\_\_\_\_\_,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_\_\_\_\_, 「선교와 문화」(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8).

사카이 다다오 외, 「도교란 무엇인가」(종교문화연구원 종교학총서

---

37) Ch. J. H. Wright, 『하나님의 선교』(정옥배/한희룡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 1) (최준식 옮김) (서울: 민족사, 1990).
- 이순연 & Th. G. Hand, 「여기 물이 있습니다 - 도교와 불교의 눈으로 살펴본 기독교」 (이희정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윤찬원, 「도교의 한국적 변용」 (한국도교사상연구총서 10)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6).
- \_\_\_\_\_, 「도교와 생명사상」 (도교문화연구 제12집), (서울: 국학자료원, 1998).
- \_\_\_\_\_, 「도교철학의 이해」 (태평경의 철학체계와 도교적 세계관) (서울: 돌베개, 1998).
- 윤찬원 외, 「태평경 역주 1-5」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506-510) (서울: 세창출판사, 2012).
- 홈스 웰치 & 안나 자이텔, 「도교의 세계-철학, 과학 그리고 종교」 (윤찬원 옮김) (서울: 사회평론, 2001).
- 이세형, “성령론에 대한 기철학적 이해”, 「선교신학」 15집 (2007).
- 이재창, 「불교경전의 이해」 (서울: 경학사, 1998).
- (재)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서울: [주]진재, 2005).
- 정재서, “태평경의 성립 및 사상에 관한 시론”, 「한국도교와 도가사상-한국도교사상연구논총 5」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1)
- J. C. Hoekendijk, *Kirche und Volk in der deutschen Missionswissenschaft* (München: Chr. Kaiser, 1967).
- Francis N. Lee, *Th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Philadelphia:Prpco, 1976).
- A.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ed. D. R. Griffin and D. W. Sherburne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 WCC, *Die Kirche f r andere und Die Kirche f r die Welt im Ringen um Strukturenmissionarischer Gemeinden* (Genf, 1967).
- Christopher J. H. Wright, 「하나님의 선교」 (정옥배/한화룡 옮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검색어

도교

불교

삼일성

도(道)

로고스

하나님의 형상

평화

공(空)

정체성

하나님의 선교

A Study on Contact Points Between Oriental  
Religions and Christianity for Spreading Mission  
- Focused on Taoism and Buddhism -

Eun-Soo Kim,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Jeonju University

There are much more Taoists and Buddhists than christians in Asia, and also Taoism and Buddhism have a long history more than Christianity. Therefore, this paper is to study a possible contact point being in these oriental religions and christianity for spreading mission and to provide the practical ways to mission for Korean churches. For this, this tried to find a

[www.kci.go.kr](http://www.kci.go.kr)

contact point for mission comparing christianity with the ideas in Taoism's 『T'ai-p'ing Ching, 太平經』 and 『Vajracchedika-Prajnaparamita-Sutra, 金剛經』.

The trinity of Taoism and Buddhism thoughts is a method revealing oneness and a method revealing others. It is more helpful to explain the truth of christianity based on oriental hebraistic thought than western Newtonian and Cartesian thoughts based on the dualism which judges right from wrong of reality. At first, the way to being of God as the Trinity in christianity is similar to the trinity(三一性) of Taoism. 'Ŭm'(陰), which is the origin of all things is God(Father) we can see through our eyes, and 'Yang'(陽) is God(Jesus Christ), who is seen as a son. Jesus Christ said to us, "Anyon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John 14:9) We can be seen the Father from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spirits of the Father and the Son, which is 'ch'i'(氣) in Taoism, exist fully in action among us. The action of the Trinity of God is the Holy Spirit. This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the truth.(John 15:26, 14:26) The trinity(三一性) of Taoism is to realize the truth and to follow the way to the truth as a kind of movement for life. The 'Sunyata,'(空) in Buddhism means a state that one couldn't shut oneself in the limit and call oneself by his name. And it is the same as the color(色, 形). Therefore, it means that the color is the Sunyata. The color which has a physical form is the same as the Sunyata, which is a transcendent man. So Jesus Christ who had come into the world as a man is the same as invisible God. As a result, the color is similar to the Son of God, and the Sunyata is similar to God the Father. Life comes from Two of these. That is the 'spirit' like the Holy Spirit in christianity.

Consequently, even though Taoism and Buddhism as an oriental religion have many similarities with the christianity that has an oriental

world, it is impossible to find doctrine continuity with christianity. However, despite this obvious theological differences, it is necessary to try to find mission contact points from the world view of oriental religions, for the Gospel can spread much better in the principles of oriental religion. So it is meaningful to find the contact point for mission because the Christian Gospel as an oriental religion in the principle of analytics can spread more clearly to Koreans who have lived in the tradition of Taoism and Buddhism for a long time more than in the thoughts of western dualism.

### **Keywords**

Taoism, Buddhism

trinity, Tao

Logos, Imago Dei

Shalom, Sunyata

identity, missio Dei

- 투고일: 2014년 7월 01일
- 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8월 06일